http://dx.doi.org/10.21186/IPR.2016.1.2.079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오영이*, 이숙민**
원광대학교

The Effect of the Group Art Therapy using Recall on the Quality of Life and Emotion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in Day Care Center

Young-Yi Oh*, Sug-Min Lee**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거주 경증 치매 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라북도 I시에 소재한 노인전문 주간보호시설의 노인 중 75세에서 96세 까지 MMSE-K 점수가 15 ~ 23점의 경증치매노인이며, 실험집단에게는 6개월간 주 1회 60분씩 사전 사후 포함하여 30회기로 구성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처치기간 동안 통제집단은 무 처치하였다. 연구결과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 정서, 질적분석 바디이미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정서측정도구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거주 경증치매노인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안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회상요법, 집단미술치료, 주간보호시설 경증치매노인, 삶의 질, 정서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effect of the group art therapy with recall on the quality of life and emotion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in day care center. The study objects were the elderly from 75 to 96 years old and MMSE-K grade were 15-23 points with mild dementia in Jeollabuk-do day care center. The experimental group was treated group art therapy for 6 months, once a week, 60 minutes, total 30 times and the control group was treated none at the same duration. The study results had implications that group art therapy using recall method helped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in day care center by actively embracing their life and expressing more stable emotion to get along their life.

Key Words : Recall therapy, Group art therapy, Elderly with mild dementia, Quality of life, Emotion

본 논문은 오영이(2015)의 석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하였음.
Received 7 June 2016, Revised 15 June 2016
Accepted 20 July 2016
Corresponding Author: Sug-Min Lee
(Wonkwang University)
Email: rosemins@wonkwang.ac.kr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수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두었으며, 경증치매노인 대상 주간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치매환자 수는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치매환자 수는 20년 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2030에는 약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2013).

특히 치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호관리 및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충과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연령에 따라 사회적 상실과 활동력의 감소로 가정에서나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면 타인들과 감정적 교류가 적어지면서 삶의 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노인들이 건강을 잃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지와 수용을 통한 심리적 도움을 주고자 연구의 목적을 가졌다.

본 연구는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의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매 회기 프로그램마다 구체적인 회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과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경증치매노인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경증치매노인의 투사검사 질적분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회상요법과 노인집단미술치료

2.1.1 회상요법

Butler(1964)는 회상 또는 생의 회고는 노인의 심리적 재구성 및 발달 위기를 포함한 어떠한 위기에 대한 일반적 반응을 증진한다고 그 가치에 대하여 말하였다.

Carmel에 의하면 회상요법의 대상자로는 건강한 노인들로부터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까지 거의 모두가 해당되며 특히 치매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유용하다고 설명하였다(박경아, 2003)[1].

치매노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상실을 경험하고 보호시설에서의 생활로 억압되고, 감정적 공유의 기회가 축소됨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기억력 감퇴로 정보습득 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최근에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이윤로 외, 2000)[2].

이와 같이 치료절차로서의 회상이 치매노인에게 자기표현의 기회가 되고, 정리 되지 않은 감정, 두려움 등을 미술치료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불안한 감정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1.2 노인집단미술치료

노인미술치료는 노인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을 개발하는 예술적 창의적인 것으로 노년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미술활동을 통하여 노인에게 삶의 건강한 측면을 끌어낼 수 도 있다(정여주, 2006)[3].

특히나 치매노인의 미술치료는 노인의 심리 치료에 대한 회상요법의 접근방법에서 보이는 어려움을 미술치료가 보안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Disabato(1995)는 미술치료와 회상요법을 병행한 창조적과정이 노인의 생에 회고 과정과 결합했을 때 노인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줄 수 있고 미술치료의 이용은 언어적 회상과정을 향상시키고 심각한 질환에 직면한 노인의 상태불안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한다고 하였다(도복름외, 2003)[4].

Gallagher(1993)는 미술치료를 이용한 생의 회고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삶에 대해 긍정적 평화적 수용에 도달할 수 있고 그들이 견뎌왔던 상실이 빚어낸 미해결된 문제와 슬픔에 기인한 걱정거리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숙, 2004)[5].

2.2 노인과 치매

2.2.1 노인의 특징

노인이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결손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소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신체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적응상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신체조직 및 기능의 소모로 적응감퇴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밝히고 있다.

Cavan(1949)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건강과 경제적 불안감, 생활 부적응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감, 정신적 흥미의 감퇴에서 오는 내폐성 육체적인 쾌락추구, 활동성의 감소, 성적충동의 감퇴,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학습이나 적응의 곤란, 고독감, 질투심, 보수적 다변화, 우둔, 과거에 대한 집착, 누추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들은 불면증, 체중감소, 감정적 무감각, 강박관념, 증오심등의 구체적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기도 한다(안계일, 2005)[6].

또한 노인의 사회적 특성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서 중요한 대인관계가 많이 줄어들고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인 유동성 때문에 사회적 접촉이 감소하여 노인들은 점점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신종태, 2000)[7].

2.2.2 치매의 개념과 증상

치매라는 말은 'Dement'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정상적인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 '정신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대한노인정신의학회, 1998). 이러한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언어, 학습, 지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퇴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0판(ICO-10)에서는 이러한 치매를 알쯔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기타질병에 의한 치매, 분명치 않은 치매로 구분하고 있다.

치매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 특성에는 망상, 환각, 오식별, 무감동, 불안, 혼란, 우울증을 들 수 있다. 치매노인의 40~50%에서 우울과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치매 초기단계에 많이 나타난다. 치매노인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며 불안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의욕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이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비하하고 수면장애와 식욕부진 등의 정서적 증상을 보인다. 일부 치매노인 중에는 지나치게 감정이 고양되어 깔깔대며 웃는 등의 조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권중돈, 2012)[8].

2.3 주간보호시설과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 · 정서

2.3.1 주간보호시설

Hancock(1990)은 노인주간보호는 "노인들이 단시간 동안 잠깐 들르는 간이휴식센터(drop-in center)에서 이루어지는 수공예 활동에서부터 주간에서 일반적인 병원의 입원치료와 유사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가복지시설 형태"로 정의하였다[9].

노인복지법에서는 주·야간보호서비스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2.3.2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 · 정서

경증치매노인은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K 점수가 15-19점에 해당되며(14점 이하 중증 치매의심, 15-19점 경증치매 의심, 20-23 치매의심, 24점 이상 정상)(한국치매가족협회, 2006) 초기에는 경미한 인격 장애로 나타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삶에 대한 의욕의 저하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장미애, 2012)[10].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로튼은 4가지 영역으로 보았는데 첫 번째 영역은 행동능력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정신증상을 포함하며, 두 번째 영역은 물리적인 수단을 가진 지표들로 구분하는 환경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의 개인공간은 얼마나 확보 되었으며 노인의 편리성을 얼마나 배려하여 배치했는가 등의 객관적 특성 평가 영역이다. 세 번째는 주관적 특성평가로서의 주관적 삶의 질인데 Cambell(1976)은 물질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관적·정신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앞

에 언급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노인자신이 평가하는 심리적 웰빙 부분이다[11].

Brod et al(1999)등은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보행 장애, 전신쇠약증, 실금, 경련, 영양부족 등 각종 신체장애와 감염성 질환이 발생되고 인지와 일상생활, 대인관계 기술 등의 저하를 보이는 만성질환이며, 또한 식물인간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아 치매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인의 삶의 질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12].

치매노인의 정서는 인지기능의 저하로 치료가 제한적이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망각하기 쉽고 최근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져서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된다(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2)[13]. 적극적인 감정표현 빈도가 60%고, 고도 치매노인들도 표현이 30%가 넘고 치매가 중증 일수록 긍정적인 감정표현은 줄고 부정적 정서 표현이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노인 삶의 질과 정서에 관한 연구 자료는 너무도 미미한 상태이므로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치매노인의 행복과 안녕을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신의 의견표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안정된 정서를 높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3. 선행연구 고찰

장혜영(2007)은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 초기 치매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사례연구에는 경증치매노인들의 고립감 우울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집단미술치료과정의 역동을 통하여 자기감정을 찾아보며 표현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하여 지지, 격려를 받으므로 변화되어지는 긍정적 의식을 통해 집단미술치료 이전보다 집단원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개선에 심리적·행동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14].

신길현(2008)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에게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미술의 다양한 재료가 주는 것과 특히 치매노인이 점토사용과 자연물작업이 기억의 회상과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정도를 향상시키며 신경정신행동과 관련한 빈도와 심각도를 감소시키고 부양자의 고통을 줄여줌을 보여주었다[15].

김정숙(2007)은 저기능수준의 치매환자들에게 시각적, 감각적 자극으로써 미술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치매환자들의 음성적 배회행동이 완화되었고 안전한 분위기와 비위협적인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창조성에 초점을 두고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어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기억력과 문제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노인의 창의성과 자기성취를 이루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16].

송숙영(2012)의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집단 원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통스럽거나 외상적인 사건들로 인한 불안, 공포, 우울감 등의 감정들을 나누며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였다[17].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회상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인구의 증가에 절실히 요구되는 심리치료의 기법으로 개발되어 임상현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술치료가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설 내 노인들에게 심리정서적인 환경이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보며 회상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들 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4. 연구의 방법

4.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북지역 I시의 노인복지센터 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남녀 노인 중 75세에서 96세 까지의 혼성 경증치매노인이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사전 만남을 통해서 미술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노인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검사는 한국형간이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 : MMSE-K)를 실시하여 총 34명(남자 13명, 여자21명)의 동질성검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집단 16명을 선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각 8명씩 무선 할당 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무 처치하였다.

4.2 연구도구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는 미국의 존슨 홉킨스대학에서 개발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법으로 시간지남력 5점, 공간지남력 5점, 기억등록 3점, 기억회상 3점, 주의집중과 계산능력 5점, 언어 및 시공간 9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당 1점씩 총 30점 만점이다(이형석 외 2003).

삶의 질 측정도구(Life Satisfaction Index-A; LSI-A)는 Neugarten등(1961)이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0문항의 7점 척도 Life Satisfaction Index-A(LSI-A)를 Wood등(1969)이 13문항의 3점 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이후 최헌(1997)이 수정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부정 문항은 역순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측정도구(The Apparent Emotion Rating Instrument; AER)는 Synder등(1997)이 개발한 The Apparent Emotion Rating Instrument(AER) 정서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관찰측정했다. AER은 세 개의 긍정적인 정서 기쁨(pleasure), 관심(interest), 안정(tranquility)-와, 세 개의 부정적인 정서불안(anxiety), 우울(depression), 분노(anger)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세부정서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 보기들이 있다.

바디이미지 그림에 나타난 개인별 표현된 이미지는 Machover(1949)의 인물화 검사 분석 규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바디이미지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는 느낌과 태도로 정신적인 상(mental image)이다(Thomas, 2000).

4.3 연구절차 및 설계

전북지역 I시의 노인복지센터 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5년 1월에서 6월까지 주 2회, 회기별 40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포함한 총 30회를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먼저 양적연구에 대한 자료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MMSE-K”, “한국형 노인 우울 측정치” 등은 간호원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고, 양적분석을 위한 삶의 질의 척도검사의 12문항의 질문은 고령의 노인들로서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관계로 연구자나 보조진행자들이 읽어주고 노인이 대답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삶의 질과 정서를 알아보기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매 회기마다 정리하였으며, 정서를 알아보기 위한 바디이미지는 사전, 사후검사로 실시하였다.

〈Table 1〉 Research Design

Division	Pre-test	Treatmemt	Post-test
Experimental Group(R)	O_1	X	O^2
Control Group(R)	O^3	-	O^4

R : Random Assignment O : Pre-Post Test X : Group Art Therapy Program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전·사후에 동일하게 삶의 질의 척도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군 16명 중 실험집단 8명에게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주 1회 60분 총 30회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이 기간 동안 무 처지 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실시는 본연구자와 관찰자 1인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 실시 후 회의를 통해 집단 원들의 행동관찰내용과 녹취를 근거로 매회기를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삶의 질과 정서측정도구의 전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공변량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사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를 실시하였다. 위 분석은 IBM SPSS 22.0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또한 바디이미지의 질적분석은 본 연구와 1인의 미술치료사가 각각 그림에 대한 구조적분석과 HTP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임상수련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5. 연구결과

5.1 삶의 질 사전·사후검사 변화

삶의 질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보정한 후 사전, 사후 비교(ANCOVA)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삶의 질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01). 삶의 질은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 23.50점, 실시 후 30.25점으로 6.75점만큼 높아졌다.

〈Table 2〉 Quality of life

Group	Pre-test		Post-test		F	p
	M	SD	M	SD		
Experimental Group	23.50	4.50	30.25	0.46	12.386	.004
Control Group	21.88	6.49	22.63	6.48		

5.2 정서 사전 · 사후검사 변화

정서측정도구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보정한 후 사전, 사후 비교(ANCOVA)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정서측정도구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01). 실험군의 프로그램 실시 전 2.88점, 실시 후 3.25점으로 0.75점만큼 높아졌다.

〈Table 3〉 Emotion

Group	Pre-test		Post-test		F	p
	M	SD	M	SD		
Experimental Group	2.88	2.10	3.25	2.10	12.835	.003
Control Group	1.88	1.25	3.00	0.00		

5.3 바디이미지 사전 · 사후검사 변화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바디이미지의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삶의 질과 정서적인 안정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전검사 때의 불안정한 정서(불안, 퇴행, 부적응, 우울, 분열증적, 공격성, 약한 에너지, 비판에 지나친 의식, 죄책감, 갈등, 애정이나 물질결핍, 좌절, 정서장애)에서 사후검사 때 보다 안정된 정서(자기애적, 애정, 물질보상, 세력의 과시, 강한 필압, 야심, 안정에의 보상)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분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삶의 질과 정서를 양적분석하였고, 질적분석은 바디이미지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삶의 질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01).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 23.50점, 실시 후30.25점으로 6.75점만큼 높아졌다.

둘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이 정서측정 결과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정서측정도구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01). 실험군의 프로그램 실시 전 2.88점, 실시 후 3.25점으로 0.75점만큼 높아졌다.

셋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바디이미지의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삶의 질과 정서적인 안정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희(2013)의 바디이미지 그림이 하나의 그림 진단도구의 역할을 하였으며 바디이미지 그림에서 우울정서가 직접적 또는 상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빈도와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의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들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미술치료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전라북도 I시의 노인전문 주간보호시설의 75세 이상 초 고령의 지방의 노인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한 결과이므로 구조화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양적분석 연구결과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표현의 촉진적인 역할을 갖는 것은 물론, 표현을 통하여 회상능력의 향상,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로 보는 '정서적 안정'의 효과와 '삶의 질'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고립감 및 우

울의 감소와 정서적 안정감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성들의 제시로 인해 치매노인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에서 유용한 치료적 중재로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우울의 감소와 안정적인 정서표현 등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Kyung Ah Park, " The effect of the Group Art Therapy on the Depression and Social·Emotional Loneliness, Self-Esteem of Elderly Women", Graduate School of Health & Complementary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2] Yoon Roh Lee, Jong Han Park, "Causes and Therapy of Dementia",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Hakmunsa, p. 242, 2000.

[3] Yeo Joo Jung, "Art Therapy for the Elderly", Hakjisa, 2006.

[4] Bok-Reum Doh, Young-Sook Kim, "The Art Therapy Applying to Dementia and Reminiscence", Collected Papers of Gyeongbuk College of Health, Vol. 29, pp. 11-26, 2003.

[5] Young Sook Kim, "Effects of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with Reminiscence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f Demented Elderly",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4.

[6] Gye-Il Ahn, "A Study on the Aged's Leisure Satisfaction in their Participation in Sport-for-all",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7] Jong-Tae Sin, "A Study of Social Welfare Service Devices by Psychosocial Problems of the Aged",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D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8] Joong Don Kwon, "Welfare for the Aged", Hakjisa, 2010.

[9] B. L. Hancock,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Pearson College Division, 1990.

[10] Mi Aae Jang, "The Effect of the Group Art Therapy to Enhance of a Verbal Self-expression on the Alzheimer's Disease Patients Residing in Adult Nursery : based on Recall Techniques", Graduate School of Innovation,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11] A. Cambell,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2, 1976.

[12] M. Brod, AL. Stewart, L. Sands, P. Walt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 fe in Dementia: The Dementia Quality of Life Instrument(DQoL)", Gerontologist, Vol. 39, No. 1, pp. 25-35, 1999.

[13]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rty, "Korean Assessment Scales for Demented Patients, Hakjisa, 2003.

[14] Hye Young, Jang,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roup Art Therapy on Relieving Loneliness of the Bereaved Elderl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15] Gil Hyun Shin, "A Study on the Effects Group Art Therapy for Enhancing Self-esteem on Demented Elders' Quality of Life",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 Dongg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16] Jeong-Sook Kim, "The Effects of the Group Art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and Behavior Problems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in a Nursing Hom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7.

[17] Suk-Young Song,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Using Clay on the Emotions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Master's Thesis, 2012.

오 영 이(Oh, Young-Yi)

- 2015년 10월 : 원광대학교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석사)
- 2013년 6월 : 원광대학교 보육정보센타 상담사
- 관심분야 : 치료, 상담
- E-Mail : ylo304@hanmail.net

이 숙 민(Lee, Sug-Min)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 예술치료학과(예술치료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수(미술치료전문가)
- 관심분야 : 심리, 상담, 치료
- E-Mail : rosemins@wku.ac.kr